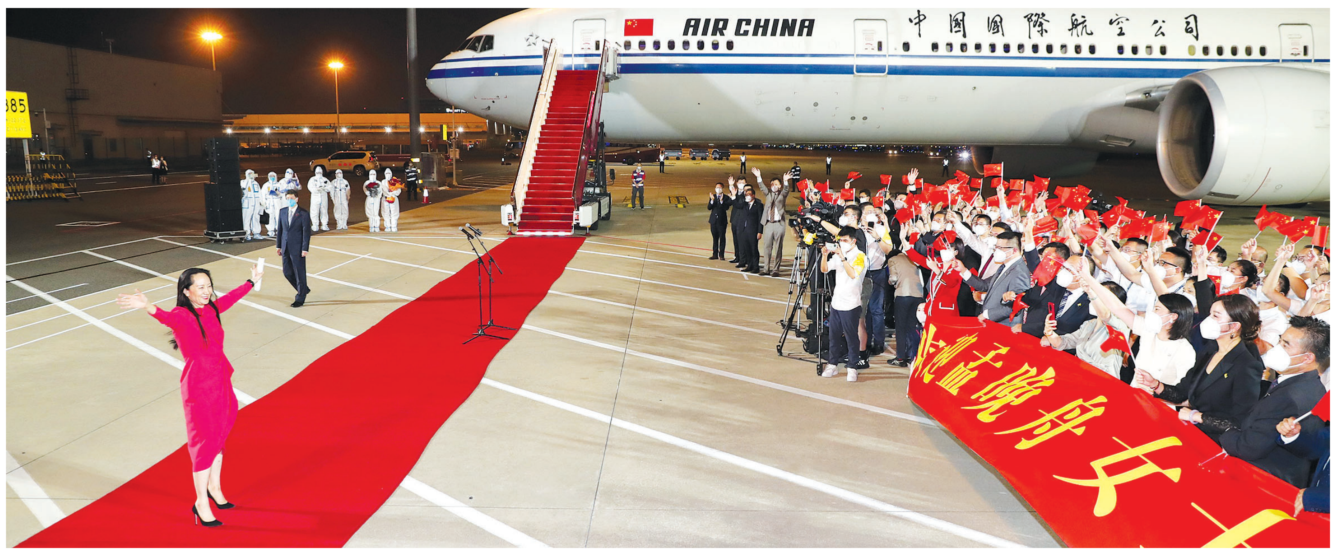

선전 공항에 도착해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손 흔드는 멍완저우. /연합뉴스

미-중 갈등 핵심 쟁점 화웨이 멍완저우 귀국

미법무와 기소 연기 합의 간첩 혐의 캐나다인 석방 관계 해소 계기 주목

중국에서 간첩혐의를 받았던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왼쪽)와 마이클 코브릭.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49) 부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전격 석방됐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낸 지 약 3년 만이다.

멍 부회장 체포 사건과 얽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돼 있던 캐나다인 2명도 이날 멍 부회장 석방 직후 풀려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첨예하게 맞선 미중 관계를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기소 연기 합의'에 멍완저우 2년 9개월만에 자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멍 부회장에 대한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 연기 합의(DPA)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 법무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는 한 일정 기간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하게 된다. 멍 부회장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그에 대한 사기 등 형사고발은 2022년 12월 1일 기각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지검은 이날 오후 멍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기소 연기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에 따라 멍 부회장은 이날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정에 출석해 화웨이의 이란 사업에 관해 HSBC 은행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기소 연기 합의에 따라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기각하고 그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다.

◇중국도 '간첩 혐의' 캐나다인 2명 석방

AP 통신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자국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이 석방돼 중국을 떠났으며, 다음날 오전 캐나다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석방돼 중국으로 떠난 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는 캐나다와 중국, 미국 간에 사전에 조율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스페이버와 코브릭은 2018년 12월 멍 부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9일 뒤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에서 북한에서 사업 활동을 해 온 스페이버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 및 국외 추방형을 선고했다.

코브릭 역시 2017~2018년 사업가로 위장해 중국에 들어와 베이징·상하이와 지린성 등지에서 소식통을 통해 중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량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보복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중국은 그간 두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 블링컨 "캐나다인 석방 환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멍 부회장이 풀려난 뒤 중국 정부가 캐나디인 2명을 석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2년 반 이상 독단적으로 억류됐던 캐나다 시민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석방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6년 만에 막 내리는 메르켈 시대

유럽 지도자 중 지지율 최고 대형 위기에 강한 독일 총리

독일이 26일(현지시간) 연방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의 시대가 16년 만에 막을 내린다.

독일은 선거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도 연립정부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날 총선 결과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누가 이을지가 결정된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 동독 출신 총리로 선출된 뒤 16년간 재임하다, 자의로 총리직을 내려놓는 첫 총리가 된다.

목사의 딸로, 동독의 평범한 물리학자였던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1989년 훗날 기독민주당(CDU)에 합류한 옛 동독의 정치단체 중 하나인 민주궐기(DA)를 통해 정계에 입문, 구동독 마지막 정부의 대변인을 지냈다. 통일 이후에는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발탁으로 기민당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콜의 양녀'로 불리며 1991년 여성청소년부 장관, 1994년 환경부 장관, 기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999년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정치적 아버지' 콜 전 총리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면서 결별했고, 권력의 공백 속에 2000년 첫 여성 기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기민당 총리 후보로 추대되고 2005년 총리로 선출돼 정계 입문 이후 총리까지 불과 15년 만에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다.

총리 취임 후에는 2009년 총선, 2013년 총선, 2017년 총선에서 내리 승리하면서 4차례 연임했다. 그는 이후 2018년 말 자의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정 협상이 길어져 오는 12월 19일까지 총리로 재임한다면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그는 정치 노선과 관계없이 사안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독일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절충·타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른바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를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1년과 2015년 유럽 부채위기, 2015년 유럽 난민위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유럽 안팎에서 유럽 주요 지도자 중 가장 높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조사한 결과다.

자비네 크롭 자유베를린대 정치학과 교수는 ZDF방송에서 "메르켈 총리는 첫 여성 총리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로 어려운 시기에 침착하게 정부를 운영해냈고,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서 "반면, 기후정책이나 디지털화 등 큰 미래과제는 차기 정부에서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겨냥 원거리 타격용 미사일 양산

대만, 군 특별예산 투입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군 특별예산을 투입, 중국을 겨냥한 원거리 타격용 미사일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행정원이 지난 17일 원점 타격용 미사일 양산 등에 5년간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1,952억원)를 투입하는 군 전력 향상 특별예산안을 편성, 입법원(국회)에 송부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입법원에 미사일 종류별 양산 시기를 공개 설명했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사거리가 200km로 중국 동남부 연안 미사일 기지와 군 비행장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완젠탄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 1,200km로 싼샤댐도 타격이 가능한 슝펑-2E 개량형 순항 미사일로 알려진 슝성 미사일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속탄 미사일인 완젠탄 미사일과 슝성 미사일은 각각 2024년과 2025년에 양산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거리 400km인 슝펑-3 개량형은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퉈장함(PGG-618)급 양산형 스텔스 초계함의 양산과 슝펑 미사일 시스템 장착 등은 2026년에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의 레이더만을 골라 파괴하는 이스라엘제 무인공격기 하피와 유사해 '자살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 젠샹도 내년부터 4년간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젠탄은 2010년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30억 대만달러(약 1,274억원)를 투입해 개발한 미사일로 현재 사거리 200km를 400km로 늘리기 위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 윈(Y)-8 대잠초계기 1대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독도에 건물 못짓게 하겠다"

일본 총리 후보 다카이치 망언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사진)이 독도에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는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전날 일본 효고현 의회와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일본 정부에는 없는데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오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극우 성향 인물로 꼽힌다. /연합뉴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